

한·미 이중발화 인식 양상 비교 연구*

이 찬 규 · 이 유 미**

(중앙대학교)

<Abstract>

Lee, chan-kyu, Yi, Yu-mi. 2011. A comparative study on cognition of doublespeak between Korean and American. *Korean Semantics* 35.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comparison the category of doublespeak and to compare the perception of doublespeak between Korean and American. With the aim of comparing the perception of doublespeak between Korean and American, this study used a questionnaire survey, which was conducted targeting a Korean and American twice. The first survey was on awareness of doublespeak, and the second one on perception of doublespeak. The first is preliminary survey for the second survey. The perception aspects of Korean' & American' doublespeak confirmed through the second survey result are as follows. First, Both the Korean and American were found to be influenced much by the interpretation of a person around them in case they didn't accurately grasp the meaning of doublespeak. Second, However in case of a Korean, he/she tended to be influenced much by a person around him/her in case he/she accepted its meaning negatively though he/she knew the meaning of a word clearly. Third, In case of accepting the meaning of doublespeak negatively, the Korean was influenced much by a person around him/her while the American had a high tendency to think that the interpretation of a person around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 학술진흥 재단 (現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KRF-2008-A00310)

** 이찬규: 제1저자 / 이유미: 공동저자

him/her distorted the intention of the first speaker. Fourth, Media had an influence on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 American' doublespeak. Fifth, In case both people perceived the doublespeak positively, both the Korean and American were more influenced by the interpretation exposed through the press than a person around them. Last, In case both perceived the double utterance negatively, the Korean and American were more influenced by the interpretation of a person around them than the interpretation exposed through the press.

핵심어: Korean, American, doublespeak, compare, awareness, category, aspect. perception, survey, communication.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담화에서 이중발화(doublespeak)의 범주를 명확히 설정하고, 사례와 설문을 활용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나타나는 이중발화의 양상과 이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는 데 있다.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화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다양한 발화행위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한다. 청자는 화자의 의도를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화자가 청자를 속이려할 경우 청자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사소통의 전략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에 있어서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발화 방법을 선택한다. 즉, 발화 행위 자체가 유목적적(有目的的)이다. 그 목적하는 바가 설득일 수도 있고, 이해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화자는 다양한 형태의 발화 전략을 사용한다. 특히 이러한 발화 전략성은 정치나 경제와 같은 공적 목적(公的 目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잘 나타나는데 정책의 타당성이나 회사 경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이중발화(Doublespeak)는 이러한 전략적 언어 구사의 일환이다. 가장 광범위하게 정의하자면, ‘이중 발화란 긍정적 표현을 빌려 부정적 측면을 숨기려

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도 흔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국은 이중 발화에 대한 인식 정도가 매우 낮아서¹⁾ 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이중발화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면, 화자들은 이러한 방식의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데 별로 제약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방식의 언어활동이 넘쳐나면 결국 언중들의 언어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될 것이다. 언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언어라는 소중한 수단이 인간의 관계를 훼손하는 도구가 된다는 관점에서 이중발화에 대한 기초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중발화는 함축 의미의 유통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중 발화에 담긴 함축 정보가 화자와 청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의도되고, 이해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조합해 봄으로써 함축 의미에 대한 보다 면밀한 해석을 제공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이중발화의 함축 의미에 대한 언어 구조적 분석보다는 메타 화용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화자와 청자의 관점에서 이중발화가 어떻게 사용되며, 한국과 미국에서 이에 대한 인식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피는 것에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이중발화의 영향 평가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한국과 미국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상황만을 살펴서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 아직 정립되지 않은 이중발화에 대한 범주를 다루는 데 있어 미국 등 서구의 이론을 한국적 특수성에 맞게 다루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²⁾

1)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치, 경제 분야의 이중발화에 대한 뜻 이해 조사에서 이중발화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14개 어휘 가운데 4개 어휘밖에 되지 않았다.(1위 응답을 기준으로) 나머지 10개 단어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뜻은 실제 화자인 정부가 속이려 의도한 의미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공기업 선진화'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1위 응답(30%)은 '공기업 발전 추구'이었다. 또한 '세금 현실화' 역시 고소득층 세금 감면 정책임에도 '소득 투명화를 통한 탈세 방지'의 의미로 선택한 비율이 55%에 달했다.

2) 이 연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발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이중발화의 범주 설정과 한국, 미국 간의 이중발화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을 통한 이중발화의 한국적 특수성 구명

2. 이중 발화의 범주

2.1. 이중발화 관련 이론

이중발화와 관련해서는 맨 먼저 Grice(1975)의 대화의 원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대화의 원리를 위반할 경우 함축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중 발화는 질의 격률을 위배한 전형적인 경우이므로 명시적인 의미보다는 함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금 현실화’와 같은 표현에서 ‘현실화’가 ‘계산 가능’하며, ‘취소 가능성, 비고정성, 비확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축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장 근본적으로 대화에서 화자와 청자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화자가 비명시적인 발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함축적인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중발화의 경우, 화자의 발화가 청자의 귀납적 추론을 어느 정도는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Sperber·Wilson(1986, 김태욱·이현호 역, 1994:245)의 적합성 원리에 따르면 ‘직시적 자극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적합성 원리와 일치하면서 최초로 접근 가능한 해석 내용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중발화 “세금현실화”에 사용된 ‘현실화’라는 ‘의미’가 ‘인상/감세’라는 의미로 추론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발화 이후의 백과사전적 경험 축적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세금 현실화’의 ‘최초 접근 가능한 해석 내용’은 ‘세금이 비현실적이라는 전제’와, 그러니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와 같은 귀납적 추론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인상/감세’를 함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자들은 ‘현실화’라는 직시적 의미에 경도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이 ‘항상’ ‘인상/감세’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추론의 밖에서 획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세금 현실화’에 있어서 ‘현실화’라고 하는 그럴싸한 ‘신정보’를 통해 ‘세금’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구정보’를 약화시키는

두 번째: 한국어에 나타나는 이중 발화의 계층적 특수성과 함축 의미 분석

세 번째: 한국어에서 이중 발화의 메타 화용적 관점의 영향 분석

맥락 효과만을 노리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메타화용적인 해석이지만 이러한 점이 본고에서 ‘이중발화’가 역기능적(逆機能的) 의사소통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근거이다. Grundy(1995, 이원국 역, 1998:24)에서는 화용론적 불발(pragmatic misfir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자의 의도를 청자가 알아채지 못하여 생기는 결과를 다룬 것이다. 그러나 이중발화는 청자들에게 이러한 화용론적 실패를 어느 정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중발화는 대부분 간접발화의 방식을 취한다. 직접적인 지칭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간접발화의 이행 과정을 따른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Clark & Clark(1977:125)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간접발화는 ‘가능성-요구-향후 행동-이유’의 과정을 거친다. 화자가 ‘구조조정(repositioning employe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청자(직원)에게 조직이 재구성될 가능성을 말하고-조직이 재구성되면 직원들에게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며-이후에 청자는 그가 원하던 원하지 않든 화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이행해야 함을 주장하고-(구조(모두 또는 조직)를 위해) 청자는 그렇게 행동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간접발화는 대부분 공손성(恭遜性)과도 결부되어 있는데 이중발화가 현실을 완곡하게 전달한다는 측면과도 일맥상통한다. ‘해고’와 같은 직접적인 언어를 회피하여 화자와 청자가 저야 할 부담을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 있는 것이다 (Clark & Clark, 1977:126).

간접 발화와 관련지어 인지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중발화는 단어 연상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중발화는 신조어를 만드는 것이므로 우리가 지닌 기존의 의미 연상망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은유 기법을 동원하여 새로운 단어 연상을 형성해 낸다. 은유는 일종의 의미 투사 현상 중 하나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물(A)의 어떤 특성이나 의미(B)를 전혀 다른 실체(C)에 전이시킴으로써 B는 A가 구축해 온 언어적 뉘앙스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생경하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새로운 세계(C)에서 새로운 뉘앙스를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획득된 의미(D)는 새로운 의미망을 형성하여 연상에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³⁾. 정의적(情意的) 의미의 관점에서 보면 이중발화가 만

3) Clark & Clark(1977:477-478)의 ‘The Process of Associating’에서 의미 연상의 3단계를 제시

들어낸 연상은 형성 초기에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D)로 작용하지만 은유의 결과가 그러하듯이 점차 원래의 의미(B)로 귀환하게 된다. 다만 여전히 직접 지칭으로부터 갖게 되는 부담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은 은유성이 상실된 뒤에도 유효하다고 본다.

은유적 방식으로 단어 연상을 하게 되는 이중발화는 결국 중의성을 갖게 된다. 어휘적 중의성은 보통 동음어나 다의어와 관계가 있지만 이중발화에서 나타나는 중의성은 맥락이나 통사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Sebastian Lobner(2002:42-45)의 합성적 중의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중발화는 단순히 다의적 중의성을 갖는 것이 아니며, 통사적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맥락을 통해서 이해가 가능해진다. 이중발화로 표현되는 하나의 통사적 단위 안에서 의미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한 함수 관계⁴⁾는 본고에서 정리해 낼 수 없지만 전혀 다른 의미 영역의 단어들 이 하나의 통사 관계로 연결되고, 이 통사적 의미 단위는 기존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 해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합성적 중의성을 가진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manage’라는 단어를 ‘budget’에 연결하면 표층적으로는 ‘예산 관리’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내포된 의미는 ‘예산 삭감’이기 때문에 ‘manage the budget’은 중의성을 유발한다. 의도된 중의표현은 의미 집중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Clark & Clark, 1977:80-84), 이중발화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를 다른 영역으로 끌어들여 이들과 합성한 뒤 새로운 의미를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어휘소는 또 다른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2.2. 이중발화의 정의

이중발화에 관한 연구의 뿌리는 수행 발화에 있으며, 이는 Charles Morris(1938)에 의해 시작되어, 1960년대 후반 J.L.Austin(1962), J.R.searle(1969) 등의 언어 철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들은 언어사용면 또한 체계

하고 있다. 이유미·이찬규(2008)에서는 단어 연상의 결과를 탐색하였고, 사실 본고의 내용도 결과적으로는 이중발화에 의해 등장한 단어가 본래의 의미와 어떻게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4) 합성성을 형성하는 함수 관계는 본고의 핵심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논의하고자 한다.

적이며 연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성공적인 의사소통 전략이 어느 정도는 규칙의 지배를 받는 것일 뿐 아니라, 소위 엄격한 의미에서의 문법 현상과도 상호작용함을 보여주었다. 그 후 수행성, 함축 등에 관한 개념들은 Ross, Lakoff 등의 생성 의미론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복잡하게 얽힌 언어 현상의 제 양상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수행발화를 기반으로 한 이중발화는 사실상 한국어에 있어서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개념은 아니다. 한국어적 적용상의 연구를 찾아보면 전태현(2002), 이찬규(2005)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기에 이중발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가에 대한 논의부터가 필요하다.

《1984년 Nineteen Eighty-Four》의 작가 G.오웰의 영향을 받아 그 개념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이중발화의 사전적 정의는 ‘분명치 않고 모호하며 속이거나 혼동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장한 언어’이다. Lutz(1990)⁵⁾에 의하면 이중발화란 우연적인 말실수가 아니라 신중하고 계산된 언어의 악의적 사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중발화란 이중화법(二重話法, doublespeak)이라고도 하는데, 언어가 사람의 심리 상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말을 둘러대거나 모순된 표현을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二重’의 의미는 ‘겹치다’보다는 ‘서로 상반되는’이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영어로 ‘doublespeak⁶⁾’은 애매한 말, 표리가 차이 있는 말을 나타낸다. 이중발화 현상은 갑자기 나타난 발화 행태는 아니며, 아마 인류가 언어를 통해 소통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두 가지 동기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 가지는 상대방의 심적 충격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의도적 발화 동기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진실을 감추려는 애매한

5) 미국 뉴저지 주립대학교 영문학 교수인 Lutz, W.는 전 미국 교사평의회에 ‘이중화법위원회’를 두고 해마다 이중화법상의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는데, 수상자는 그해에 말을 가장 잘 둘러댔거나 모순된 발언을 일삼았던 공적자로 한다. 1983년도 수상자는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선정되었으며 그 이유는 인류를 전멸시킬 수도 있는 MX 핵미사일을 가리켜 ‘평화수호자’라고 한 데 있다.

6) doublespeak : 한 입으로 두말하다 keep two tongues in one mouth speak out of both corners of mouth.

표현으로 사용하는 이중발화는 정치적 수사나 언론에서 주로 애용하고 있으며, 이러한기에 미국의 영어 교사 협의회에서는 이중발화를 금하도록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이중발화는 완곡한 표현과도 비교가 되며, 사태가 원래 모습보다 낮게 보이게, 또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덜 자극적이게 하기 위해 쓰는 표현들이 이에 속한다. 특히 언론이나 정치에서 많이 쓰이는 이중발화는 앞과 뒤가 상반된 경우가 많고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금 인상’을 ‘세금 현실화’로 또 해고를 ‘인력 재배치’와 같이 부르는 것이다. 정치인이나 행정담당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실업은 미고용으로, 산아제한은 가족계획 등으로 나타내어, 가능하면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 직접적인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완곡화법(euphemism)과도 관련된다.

이처럼 이중발화는 현실을 왜곡하여 자신의 목적을 무리 없이 이루어 나가려는 부정적인 측면이 담겨 있는데, 한편으로는 완곡한 표현법으로서 사람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덜 주려는 긍정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화자가 청자에게 수치 감정이나 불쾌 감정, 또는 공포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단어 사용을 피하고 그러한 감정들을 야기시키지 않는 간접적이고도 시사적인 완곡한 단어나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화법적 사용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못생겼다’라는 말보다는 ‘개성 있다’라는 말이 청자의 감정적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이중발화란 직접적인 용어가 미칠 충격이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완곡하게 둘러대거나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자로 선을 긋는 것과 같이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관련되는 개념들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표 1> 이중발화의 범주 자질 분석

개념	지시 의미의 직접성	의미 해석의 多重性	발화 意圖의 긍정성	의도의 특정 청자 지향성
완곡 표현	⇒7)-	+	⇒+	⇒+
함축 표현	⇒-	+	±	⇒+
중의 표현	±	+	±	⇒-
은유 표현	-	-	⇒+	⇒-
이중 발화	-	+	-	⇒-

<표 1>에서 보듯이 이중발화가 다른 비슷한 표현과 갖는 차이점은 의미 해석에 있어 중의적 성향을 지닐 뿐 아니라 대부분 부정적인 발화의도를 갖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또한 사용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특정 청자를 대상을 하기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치적 정책이나 언론에서의 이슈 활용 슬로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중발화의 성격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부정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지시 의미를 모호화하여 직접적인 의미 연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청자를 호도하는 구절이나 문장, 표현 방식 등을 통틀어 이중발화로 다루고자 한다.

3. 한·미 이중 발화 인식 비교를 위한 실험 설계

3.1. 조사 대상 표현 선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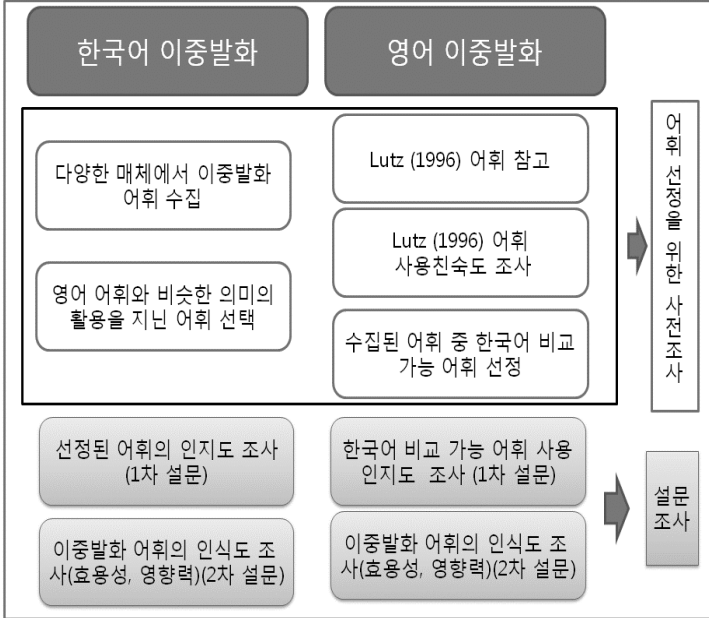
한국에서 이중발화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발화어⁸⁾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인식 양상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직접 설문 조사 방식을 채택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이중 발화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먼저 이중발화

7) '⇒'는 지향성이 강함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자질 분석에서와 같이 의미를 '+'와 '-'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약간의 퍼지적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부호로 사용하였다.

8) '이중발화'라는 용어는 이중발화 현상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하고, 구체적인 언어적 자료는 '이중발화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어를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1차 표현 인지도 조사, 2차 표현 인식도 조사의 과정을 거쳤다.



<그림 1> 이중발화 인식 양상 조사 과정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발화 실태를 이해하고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중발화 사례를 수집하였다.

한국어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에서 이중발화어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중발화어를 수집하는데 기준 적용상의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이중발화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비교 연구를 하기

9) 이 조사는 두 번의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1차 설문은 2009년 5월-2009년 6월, 2차 설문은 2009년 11월 -2009년 12월에 이루어 졌다. 미국 쪽 설문은 1차 설문에서는 3대 이상 미국 시민권자만을 조사 대상으로 할 것을 한정하여 미국인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친족 친구에게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의뢰하였고, 2차 설문에서는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에 의뢰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해서는 비슷한 의미의 이중 발화 양상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어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영어 사례로는 Lutz(1996)의 이중발화 사진이 발간되어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참고하여 한국어와 비교하여 보았다.¹⁰⁾ 그러나 이러한 시도 역시 이중발화 기준 적용적인 문제, 번역의 일치성의 문제 등이 상존하였으나 위와 같은 1차 선행 조사 과정을 통해 같은 범주의 의도적 의미의 동질성을 갖는 것을 동일 이중발화어로 하여 선정해 내었다.

3.2. 이중발화어 선정을 위한 1차 설문 조사

이 설문은 한·미 이중발화 인식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2차 조사에 사용될 이중발화어 선정을 위한 예비 설문이다. 이 설문은 이중발화로 제시하고 있는 Lutz(1996)의 이중발화어들이 실제 미국인에게 있어서도 용인 가능한가에 대한 사전 작업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미국인에게 친숙하고 용인 가능한 이중발화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와 비교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Lutz(1996) 리스트에서 미국인에게 친숙도 높은 어휘를 뽑아 86명에게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같은 시기에 한국어 이중발화어도 리스트를 작성하여 325명에게 인지도 조사를 하였다. 이 설문에 사용한 한국어 이중발화어는 36 개이고, 영어 이중발화어는 45 개다. 이에 대한 설문¹¹⁾ 결과는 다음과 같다.¹²⁾

10) 영어 사용자들의 이중발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이전에 이 목록에 대한 타당성 확보하기 위하여 부모 및 조부모와 본인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영어를 3대 이상 모국어로 사용한 화자에게 Lutz(1996) 전체 리스트에 대한 친숙도 여부를 조사하였다. 총 이중발화어에 대하여 매우 친숙함(Very Familiar word), 친숙함(Familiar word), 친숙하지 않음(Not Familiar word) 표시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이중발화어 리스트를 정리하였다.

11) 이 설문은 단지 이중발화어에 대한 인지도만을 묻는 것이므로 이중발화어의 의미를 아는가에 대하여 리커트 척도 5단계 ‘매우 잘 안다, 잘 안다, 보통이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르다’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12) 전체 결과 가운데 지면상 상위 20위까지의 결과만을 제시한다.

<표 3> 한·미 이중발화어 1차 인식 조사 결과

번호	한국어 단어	인지도(%) (매우잘안 다+잘안 다)	영어 단어	인지도(%) (매우잘안 다+잘안 다)
1	서민	87	Shortfall	55
2	규제개혁	45	substandard housing	52
3	도시환경정비사업	51	inner city	83
4	휴먼뉴딜	11	rough-and-tumble neighborhood	58
5	4대강 정비사업	40	period of negative	27
6	개미회합	25	economic shortfall	50
7	유감초과명	71	conduct electronic	52
8	공형이용료	75	surveillance economically marginalized	40
9	관망진흥기금	47	period of adjustment	48
10	장기연체	70	low-income circumstances	64
11	새금 현실화	36	mitigation of risk	34
12	소득재분배	71	lifetime learning	30
13	백값	77	occupational development destabilize	76
14	인력조정	64	domestic fallout	28
15	구조조정	85	intelligence specialist	57
16	조식효율화	63	mortality rate	79
17	경비축소	72	invest in	91
18	수익성극대화	75	enhanced	92
19	업종변경	83	manage the budget	83
20	일자리나누기	72	user charge	38

3.3. 인식 양상 조사를 위한 2차 설문

1차 설문을 통해 수집한 이중발화어 자료를 바탕으로 인식 양상 조사를 위한 2차 설문을 작성하였다. 이 설문의 목적은 계층별 이중 발화에 대한 효용성 및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설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되었다.

① 조사 이중발화어 추출

- 1차 조사 결과 인지도가 높은 이중발화어
- 영어와의 인지도 비교를 위해 영어 이중발화어와 비슷한 한국어 이중발화어
- 분야별 분포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 한 설문지 세트 안에 분야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이중발화어 선정

<표 4> 2차 설문 선정 이중발화어

한국어 이중발화어	영어 이중발화어
1세트: 서민, AI, 그린존 2세트: 성장우선정책, 구조조정, 성적 소수자 3세트: 공기업 선진화, 조직효율화, 성평등 4세트: 미국과의 대등관계, 세급현실화, 신종인플루엔자 5세트: 법치, 소득 재분배, 유감표명 6세트: 구국의 결단, 양극화 해소, 촌지 7세트: 원칙, 햇볕정책, 희망근로	1세트 :Inner city economic shortfall economically marginalized 2세트: voluntary contribution tax base broadening manage the budget 3세트 : HIV1 Flu reposition employees tax relief

- ② 위의 기준으로 선정된 이중발화어를 한국어 설문 7세트, 영어 설문 3세트로 구성
- ③ 선정된 이중발화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문 선정

<표 5> 설문 작성 예

* 설문에 앞서 아래의 문장카드를 읽어 주시고, 설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장 보기카드1>
정부가 경제 정책의 중심을 '중도강화' '친(親) 서민'에 놓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솔림'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머니투데이 2009년 8월 6일)

1. <문장 보기카드1>에서 '서민'이란 누구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체 국민을 지칭한다.
 ② 부유층을 제외한 중산층과 빈민층을 지칭한다.
 ③ 중산층을 지칭한다.
 ④ 가정형편이 어려운 계층을 뜻한다.
 ⑤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다.

위와 같은 순서로 설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이중발화어가 포함된 예문을

제시한 이유는 이중발화어가 이중발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 환경을 정확히 제시해 주기 위한 것이다. 동일 어휘라도 이중발화로 쓰일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이에 조사 환경을 이중 발화 환경으로 하여 이중발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장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설문은 위에서 보듯이 한국어 7세트, 영어 3세트로 조사하였고, 한 세트에는 3개의 이중발화어를 조사하였으며 한 이중발화어 당 질문은 6개 (부차 질문 포함)로 하였다. 조사 응답자는 한국어 708명, 영어 327명이 응답하였다.¹³⁾

4. 한·미 이중 발화 인식 양상

이 장에서는 3장의 과정으로 조사한 설문을 결과를 통해 한·미 이중발화 인식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 제시한 2차 설문은 이중발화에 대한 인식 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물음으로 구성되었다.

< 설문 목적 >

1. 이중발화어 의미에 대한 인지성
2. 이중발화어에 대한 인식 태도 (긍정성, 부정성, 중립성)
3. 이중발화어 해석적 영향성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이중발화에 대한 한·미 언중의 인식태도와 함께 의

13) 이에 대한 응답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별응답자수/명			학력응답자수/명			연령응답자수/명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남자	403	167	중졸이하	65		10대	30	28
			고졸	162	19	20대	258	183
			대재	247	211	30대	117	42
여자	297	107	대졸	194		40대	108	17
			대학원이상	28	42	50대	158	3
						60대 이상	32	
합계	700	274	합계	696	272	합계	703	273

사소통 내 이중발화의 영향성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한·미 언중의 인식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표 6> 한·미 이중발화 인식 태도에 관한 질문 예

한국어	<p><문장 보기카드1>에서 ‘서민’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십니까?</p> <p>① 매우 긍정적 ② 약간 긍정적 ③ 보통(공부정의 생각 없다) ④ 약간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p>
영어	<p>What is your first feeling or thinking when you read the word ‘inner city’ ?</p> <p>① Very positive (please answer 2-1) ② Somewhat positive (please answer 2-1) ③ Neither positive nor negative (please answer 2-3) ④ Somewhat negative (please answer 2-2) ⑤ Very negative (please answer 2-2)</p>

이 질문을 통해 ①,② 번에 대답한 경우는 의미 긍정적 인식을, ④,⑤ 번에 대답한 경우는 의미 부정적 인식을 ③번에 대답한 경우는 의미 중립적 인식을 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긍정, 부정, 중립적 인식을 하는 단어가 왜 그렇게 인식되는지에 대하여도 추가질문을 해서 이중 발화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적 양상과 이유를 살펴보았다.

4.1. 의미 긍정성

의미 긍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 6>의 질문에 대하여 ①,② 응답자 비율을 살펴보았다.

<표 7> 의미 긍정성 비교

한국어				영어			
순위	이중발화어	빈도	분야	순위	이중발화어	빈도	분야
1	양극화 해소	68 %	정치	1	voluntary contribution (요금)	93%	사회
2	햇볕정책	67 %	정치	2	tax relief (세금현실화)	89%	정치
3	성평등	65 %	사회	3	manage the budget (예산삭감)	72%	정치
4	원칙	65 %	사회	4	Inner-City (빈민가)	29%	사회
5	소득재분배	59 %	경제	5	repositioning employees (구조조정)	11%	경제
6	희망근로	53 %	경제	6	Tax base Broadening (세금 인상)	5%	경제
7	세금현실화	51 %	경제	7	economic shortfalls (불경기)	4%	경제

<표 7>은 이중발화 의미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결과 가운데 긍정의 의미로 50%이상 나온 이중발화어만을 추려보면 한국어는 ‘양극화 해소, 햇볕정책, 성평등, 원칙, 소득재분배, 희망근로, 세금현실화’ 이고, 영어는 ‘voluntary contribution, tax relief, manage the budget’이다.

<표 8> 한국어 이중발화 긍정 인식 이유

단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
양극화 해소	단어가 긍정적 뜻을 내포
햇볕정책	정부에서 좋은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석
성평등	단어 좋은 의미 내포
원칙	이 단어를 좋은 의도 사용 생각되므로
소득재분배	언론에서 많이 들어서
희망근로	정부가 좋은 의미로 사용했다는 생각
세금현실화	정부가 단순히 현실에 맞는 세금을 걷겠다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생각

<표 9> 영어 이중발화 긍정 인식 이유

단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
voluntary contribution	User uses the word with a good intention
tax relief	User uses the word with a good intention
manage the budget	User uses the word with a good intention

<표 8>과 <표 9>에서 보면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발화어의 긍정 인식 이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위의 <표 8>에서 보듯이 한국어 이중발화 긍정 인식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크게는 청자의 주체적 판단에 따른 긍정 인식과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그 가운데 청자의 주체적인 판단에 따른 긍정 인식 양상은 단어 자체가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사용자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긍정의 입장을 가지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다음으로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언론에서 이중발화어를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는 경우와 주변 사람들¹⁴⁾이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는 경우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용자 의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용 의도의 긍정성과 사용 의도 자체의 무목적성(無目的性)으로 나누어서 나타났다.

<표 10> 이중발화에 대한 긍·부정 인식 요인

이중발화에 대한 긍·부정 인식 요인		
내적 영향성 (청자의 판단)	단어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식	
	단어 사용자의 의도가 긍정적이라고 해석	좋은 의도로 사용
		무의도로 사용
		이중발화어 사용 대상자에게 좋은 의도로 사용
외적 영향성 (외부적 영향)	언론을 통한 단어의 익숙함	
	주변인 해석의 영향	

14) 여기서 ‘주변인’의 의미는 자신과 어느 정도의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한다.

<표 10>과 같은 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현재 50% 이상의 긍정성을 보인 이중발화어 중에서 내적 영향¹⁵⁾으로 인하여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비율이 한국어는 7개 어휘 중 6개 어휘가, 영어는 3개의 어휘 모두가 해당하였다. 그런데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이중발화어를 긍정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그 이유 양상이 달리 나타났다.

한국어에서 50%이상의 긍정성을 보인 이중발화어는 이중발화어 자체에 대한 긍정성과 이중발화어 사용자 의도를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그 이유가 나뉘었다. 그러나 20%-49% 정도의 긍정성을 보인 이중발화어(해당 이중발화어는 ‘공기업 선진화, 미국과의 대등관계, 조직 효율화, 법치, 그린존, 서민, 성장우선정책, 구국의 결단, 유감표명’이다.)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로는 “청자에게 좋은 의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 가장 우세했다. 이는 전체 9개의 이중발화어 가운데 5개의 이중발화어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2개의 이중발화어는 ‘언론에서 많이 들어 친숙하기 때문’과 ‘단어 자체에 아무런 의도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 선택되었다.

이 결과는 응답자들이 이중발화어에 대하여 긍정적인 판단을 하는 데에는 대략 이중발화어가 지닌 의미적 긍정성과 의도적 측면의 긍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의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이중발화어를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게 사용했을 것이라는 인식과 실제로 이중발화자 자신에게 긍정적 이익이 발생하도록 사용했을 것이라는 인식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영어의 결과는 보다 단순하게 나타났는데, 9개의 이중발화어 가운데 10% 이상의 긍정성을 얻은 5개의 이중발화어 모두를 좋은 의도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인 한·미 이중발화 긍정적 인식에 대한 이유 양상을 정리하면 긍정 인식의 이유가 대부분 내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외적인 요인¹⁶⁾이 긍정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15) ‘내적 영향’이란 수용자의 판단이나 해석 등을 의미한다.

16) 외적 요인이란 언론 등의 평가, 주변인의 해석 등에 의한 영향을 의미한다.

4.2. 부정적 반응을 보인 이중발화어

<표 11> 부정적 의미를 지닌 이중 발화어 비교

한국어				영어			
순위	이중발화어	빈도	분야	순위	이중발화어	빈도	분야
1	흔지	80%	사회	1	economic shortfalls(불경기)	94%	경제
2	성적소수자	54%	사회	2	H1N1 flu (신종플루)	88%	사회
3	신종인플루엔자	52%	사회	3	economically marginalized (저소득층)	74%	정치
4	서민	48%	정치	4	Tax Base Broadening (세금 인상)	60%	경제
5	유감표명	48%	사회	5	repositioning employees (구조 조정)	55%	경제

<표 12> 한국어 이중발화어 부정적 인식 이유

단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
economic shortfalls	The word has a negative meaning
H1N1 flu	Media interprets the word with a negative meaning
economically marginalized	The word has a negative meaning
Tax base Broadening	People around use the word with a negative meaning
repositioning employees	People around use the word with a negative meaning

<표 13> 영어 이중발화 부정 인식 이유

단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
흔지	단어가 부정적 의미 내포 /주변에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
성적소수자	주변에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
신종인플루엔자	단어가 부정적 의미 내포

이중발화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부정적 인식하는 비율이 50%가 넘는 이중발화어를 살펴본 결과 한국어가 3개(촌지, 성적 소수자, 신종인플루엔자)이고, 영어가 5개(economic shortfalls, H1N1 flu, economically marginalized, tax base broadening, repositioning employees)였다. 긍정성 인식과는 비율적으로 반대를 보이는 결과이다. 그리고 부정적 인식 양상도 한국어와 영어가 차이를 보였다. 한국어 이중발화에 대한 인식 양상은 내적 요인인 단어의 뜻이 부정적이거나, 이중발화 사용 의도가 부정적이라 판단한 비율이 높았다. 전체 21개 이중발화어 가운데 13개 이중발화어가 내적인 요인에 의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다고 답한 반면, 7개 이중발화어만이 외적인 요인에 의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답했다. (1개의 이중발화어는 응답 빈도가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영어의 경우는 이중발화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요인이 내적인 경우가 5개, 외적인 경우가 4개로 비등하게 나타났으나 50%이상의 부정성을 지닌 이중발화어에서의 부정 인식 양상은 3개씩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중발화어의 수가 적기 때문에 지배적 양상을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어에 비해서 이중발화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며 그 요인도 외부의 해석을 통한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3. 가치 중립적으로 평가한 이중발화어

<표 14> 중립적 의미 반응어 비교

한국어				영어			
순위	이중발화어	빈도	분야	순위	이중발화어	빈도	분야
1	AI	40%	사회	1	Tax Base Broadening (세금 인상)	31%	경제
2	구조조정	36%	경제	2	Inner-City (빈민가)	25%	사회
3	신종 인플루엔자	35%	사회	3	economically marginalized (저소득층)	23%	정치
4	법치	30%	정치	4	repositioning employees (구조조정)	22%	경제

5	구국의 결단	28%	정치	5	manage the budget (예산 삭감)	14%	정치
6	소득재분배	28%	경제	6	H1N1 flu (신종플루)	11%	사회
7	유감표명	28%	사회	7	tax relief (세금 현실화)	9%	정치
8	성적소수자	27%	사회	8	voluntary contribution (요금)	6%	사회
9	성장우선 정책	26%	경제	9	economic shortfalls (불경기)	2%	경제
10	세금현실화	25%	경제	10			

가치 중립적인 반응을 보인 이중발화어의 경우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 넘을 만큼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예는 없었다. 언중들이 각 이중발화어들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이것의 사회적 쓰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이중발화어를 사용한 화자의 사용 본의미를 청자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어휘 자체의 일반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이중발화어가 중립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반응한 이유에 대하여 ‘단어에 대한 긍부정 의미가 내포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1개의 이중발화어 가운데 14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응답자 주변에서 긍·부정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개였고, 언론의 긍·부정 해석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3개가 있었다.¹⁷⁾

영어에서 중립적이라는 반응을 보인 경우는 ‘친숙하지 않은 단어’라는 이유가 3개, ‘단어 자체에 긍·부정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개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미국의 경우 모두 단어의 본래 의미가 가치 중립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공통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어의 사용 의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단어의 본 의미에 영향을 받아 해석하는 경향에서 나온 결과라 하겠다.

17) 전체 21개의 이중발화어 가운데 ‘중립적’이라는 응답이 1위를 한 항목을 살펴본 것이다. 그런데 응답 결과가 동일 비율이 나온 경우는 동일하게 1위로 처리하였기에 위의 분석에서 응답 수가 21개를 넘는 것이다.

4.4. 의사소통에서 이중발화의 영향

한·미 이중발화가 의사소통 안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에서 살펴본 긍정과 부정의 이유를 비교하고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의사소통 안에서 이중발화가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이중발화어 인지도, 2차 설문에서 알아본 긍정의 이유와 부정의 이유, 그리고 단어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 외부인이나 여론이 이중발화어를 그러한 의미로 해석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서로 비교하여 보았다.

비교한 결과 한국과 미국의 이중발화어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미 이중발화에 대한 인식 차이>

1.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 이중발화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주변의 해석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2.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알더라도 의미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주변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3. 이중발화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있어, 한국인은 주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에 미국인은 주변인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주변인이 원 발화자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4. 한·미 모두 이중발화 해석에 미디어가 영향 미친다.
5. 한·미 모두 이중발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주변인의 해석보다 언론을 통해 노출된 해석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6. 한·미 모두 이중발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언론에 노출된 해석보다 주변인의 해석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다음 자료는, 한·미 이중발화의 인식적 특징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인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 이중발화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주변 해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5> 인식률이 낮은 이중발화의 긍·부정 이유

	이중발화어	응답자 이중발화 의미 (이중발화 본 의미)	긍·부정 이유(빈도)
한국어	세금 현실화	소득 투명화 탈세 방지 (고소득 세계혜택)	주변에서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얘기해서(부정 24.7%)
	공기업 선진화	공기업 발전추구 (공기업 민영화)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들어서(36.3%)
	이중발화어	1차 조사 인식률	긍·부정 이유(빈도)
영어	Tax Base Broadening	모른다+전혀모른다(55.2%)	주변인이 부정적으로 사용해서 (부정60%)
	economically marginalized	매우잘안다+안다(39.5) 모른다+전혀모른다(37.2%)	언론에서 들어 익숙해서(긍정 2.8%)

이중발화에 대한 긍·부정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1위 이유와 1차 조사인식률 등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이중발화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이중발화어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는 긍·부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 ‘외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언론이나 주변인에 의한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의미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주변적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영어 이중발화어 가운데 Tax Base Broadening(세금 인상의 의미) 같은 경우는 이 단어를 알지 못하는 비율이 55.2%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경우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도 60%에 달한다. 그리고 부정적 인식의 이유로 1위를 차지한 주변인의 영향성은 76.4%의 응답률을 보여 다른 단어에 비하여 부정 인식 이유의 압도적인 현상을 보여 주었다. 이는 이중발화어 의미에 확신이 없는 경우, 외적 영향성이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다음으로 한국인의 이중발화어 해석에 있어 주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21개의 이중발화어에 대하여 긍정적과 부정적 인식을 하는 첫째 이유는 ‘언론이나 주변인의 영향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15개이다(공동1위 포함). 그 가운데 주변인에 의한 영향성은 6개인데 모두 부정적 인식에서만 나타났다.

의미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있어서 외적 영향성을 꼽은 경우는 5개, 부정적 인식에 있어 외적 영향성을 꼽은 경우는 9개 이중발화어였다. 이 가운데 부정적 이중발화어 9개에서 6개 이중발화어가 주변인의 영향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특징적인 사실은 한국인이나 미국인 모두 미디어의 익숙한 노출은 긍정적인 영향에 중요한 변인이 되지만 주변인의 긍정적인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미디어의 영향력보다 주변인의 평가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특징은 영어나 한국어 긍정 인식 1위 이유 가운데 그 어느 곳에서도 주변인의 긍정적 해석이라는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데 반해서 부정 인식 1위 이유 가운데에는 언론의 부정적 해석의 영향성보다 주변인의 부정적 해석 때문이라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에서 알 수 있다.¹⁸⁾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 미치는 주변인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한국인과 미국인에게 있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주변인의 해석이 왜곡된 해석이 아니라 본 발화의 숨겨진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신뢰할만한 해석이라고 보는 반면에 미국인은 주변인의 부정적 해석은 이중발화어 사용자를 공격하려는 왜곡된 해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¹⁹⁾

영어에서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상위 5개 이중발화어의 경우, 영향을 준 외부인의 해석 의도는 본 발화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공격하려는 의도라고

18) 한국어에 있어 21개 이중발화어 가운데 외적 요인이 긍·부정 인식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은 이중발화어는 긍정 5개, 부정 9개이다. 그 가운데 긍정은 모두 언론을 통한 익숙함을 선택했고, 부정 이유 가운데는 6개의 이중발화어가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 영어의 경우 긍정 인식에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주변인의 영향에 대한 응답은 없었고, 부정 인식에서는 외적 영향 선택의 4개 이중발화어 가운데 3개 이중발화어가 주변인의 영향을 선택하였다.

19) 이러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질문> 주변사람들이나 언론이 여러분의 ‘그린존’이란 단어 해석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들은 왜 ‘그린존’을 그와 같이 해석하였습니까?

- ① 주변 사람이나 매체는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숨겨진 의도까지 정확히 판단했기 때문에
- ② 주변 사람이나 매체는 이 단어 사용의 의도나 뜻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공격하려고
- ③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대답한 것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 한국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한국인이 외부 해석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음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다른 측면에서는 이중발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한국인에게 있어 발화자의 왜곡성이나 이를 이용한 해석자의 왜곡성에 대한 의도를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나타난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 설문지의 응답 결과를 Lutz(1993)의 분석과 비교 해 보면 다소 차이점이 나타난다. Lutz(1993)에서는 이중발화 가운데 사회현상에 대한 이중발화는 청자에게 해가되는 측면이 없고 오히려 재미있게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경제 관련 이중발화는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라는 언어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같은 분야의 이중발화는 결국 소통하는 사람에게 의심과 불신을 일으켜 중국에는 적개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명료한 언어로 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Lutz(1993)의 주장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조사된 이중발화에서 사회 현상에 대한 이중발화는 긍정성이 높게 나타나고 정치나 경제 발화는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나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위의 4장의 1,2,3절에서 제시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나 미국 모두 사회나 정치, 경제의 분야적인 측면에서의 이중발화의 특별한 선호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중발화에 사용된 이중발화어의 긍·부정성이나 이중발화가 쓰이는 언어 사회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긍·부정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이중발화어는 한국이나 미국 모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고, 한국인에게 있어 ‘촌지’나 ‘성적 소수자’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 이유는 ‘주변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렇게 분야와 관계없는 이중발화에 대한 긍·부정적인 인식은 언중들이 이중발화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일반 언중은 Lutz(1993)의 주장처럼 이중발화를 속임수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단지 표면 의미와 함축 의미의 중의적 속성만을 인지했기 때문에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는가 못하는가 또는 함축적 의미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만 초점이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석자는 언어 자체의 긍·부정

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화자의 본래 의도의 불순성을 중심으로 이중발화어의 긍·부정성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미 이중발화 인식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인과 미국인이 이중발화의 화자적 의도성에 대한 인식 양상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중간 해석자의 역할에 있어 미국인은 의도성을 부여하나 한국인은 그렇지 않은 점에서 발화의 의미를 해석할 때 외부 영향성을 받는 것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²⁰⁾

5. 결론

이상을 통하여 한·미 이중발화의 인식 양상을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다. 언어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교묘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로도 사용된다. 외교, 정치, 언론, 광고 등 공적 언어로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중발화는 생활 속에서도 은연중에 쓰이기도 하지만 영향력 있는 인사의 정치적 발언이나 외교용어, 또는 기업과 같은 조직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발화 유형이다. 이러한 의도적인 사용을 청자인 언중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적 차이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본고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중발화의 속성을 설문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한국인과 미국인에게 있어서 이중발화 인식의 차이는 다음 6가지로 나타났다.

- 1)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 이중발화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주변의 해석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 2)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알더라도 의미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주변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 3) 이중발화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있어, 한국인은 주변인의 영향

20) 사실상 이중발화라는 현상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 미국이 이중발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율이 높고 중간 해석자의 왜곡적 의도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은 특징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이중발화라는 현상 자체에 대한 인식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지 않은 관계로 이것이 이중발화라는 언어 현상을 인지하는 것과 관계된 결과라고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을 많이 받는 반면에 미국인은 주변인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주변인이 원 발화자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 4) 한·미 모두 이중발화 해석에 미디어가 영향 미친다.
- 5) 한·미 모두 이중발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주변인의 해석보다 언론을 통해 노출된 해석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 6) 한·미 모두 이중발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언론에 노출된 해석보다 주변인의 해석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정리해보면 한국인이 이중발화를 해석할 때 미국인보다 주변인에게 영향을 많이 받으며 주변인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방대한 양을 통해 이뤄졌으나 이중발화어의 한정성과 영어와 한국어의 동일 이중발화어를 비교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면상의 이유로 계층 간의 결과 비교를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다음 연구에서 보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기홍(1986) 한·미간의 의사소통상 장애가 될 어휘와 구 표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 논문집19, pp 27-39.
- 박경현(1983) '국어의 중의적 표현구조에 대한 연구', 논문집 1. 경찰대학. pp 31-66.
- 오세철(1982) 한국인의 사회심리, 박영사.
- 이유미(2002) 談話에 나타나는 重義의 類型과 特徵, 한국어 의미학10, pp. 143-166.
- 이유미(2005) 국어 담화상의 중의현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유미·이찬규(2007) '가족' 단어의 연상 의미 연구, 국어학 50집, pp.295-328.
- 이정수(1988) 의사표현능력으로서의 간접언어행위에 관한 연구, 仁濟論叢4, 인제대학교.
- 이준희(2004) 간접 화행, 역락
- 이찬규 譯 (2003) Berko · Wlovin · Wlovin 著, 언어 커뮤니케이션, 한국문화사.
- 이찬규(1999)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작용. 한국어 의미학 4. pp 99-130.
- 이찬규(2005)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함축표현의 효과, 어문연구128. 한국어문교연구회. pp 33-55.
- 이찬규(2006) 이중발화 범주와 속성, 국어학논총, 동인.
- 전태현(2002) 대중매체 담화 속의 더블스피크, 언어와 언어학 29, pp227-259.

- 정향철(1980) 한국인의 의사소통 양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 Clark, H Herbert & Clark, V. Eve(1977) *Psychology and Language*, Harcourt Brace Jovanovich International Edition.
- Fowler, Roger (1991) *Language in the News: Discourse and Ideology in the Pres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Fowler, Roger (1985) 'Power', in Teun A.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4: Discourse Analysis and Society, pp.61-82. London :Academic
- Grice(1975) *Logic and Conversation*, P. Cole and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3 : Speech Acts, New York.
- Grundy(1995) *Doing Pragmatics*(이원국 역(1998), 영어 화용론의 실제와 연구, 한신문화사), London:Edward Arnold.
- Hodge, Robert and Gunther Kress(1993) *Language as Ideology*. 2nd Editon. London/New York: Routledge.
- Horn(1989) *A Natural History of Neg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G.(1995) *Conversation*, In G. Huck and J. Goldsmith, eds., *Ideology and Linguistic Theory*, London : Routledge.
- Lutz, W (1990) *Doublespeak*, New York :Harper Perennial
- Lutz, W (1993) Corporate doublespeak: Making bad news look good. *Business and Society Review* 44.
- Lutz, W (1996) *The New Doublespeak*, New York : HarperCollins
- Searle, J. R.(1969)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bastian Lobner(2002) *Understanding Semantics*, London: Arnold Publishers.
- Sperber, D. & D. Wilson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김태호 이현호 역(1994), 인지적 화용론, 한신문화사). Blackwell, Oxford.
- Van Dijk, T.A. (1988) *News as Discourse*. Hillsdale: Lawrence Erlbaum.
- Wegner, D. M., Wenzlaff, R., Kerker, R. M., & Beattie, A. E. (1981) Incrimination through innuendo: Can media questions become public answ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이찬규(중앙대)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2-820-5094/leeck@cau.ac.kr

이유미(중앙대)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02-820-5715/joystu@cau.ac.kr

원고 접수일: 2011년 07월 11일
원고 수정일: 2011년 08월 16일
게재 확정일: 2011년 08월 23일